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提高 방식 연구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서정민(아주대)

1. 머리말
2. 전편 서사와 역사 서사의 위상 조율
3. 전편 서술의 空疎와 <명행정의록>
4. 역사 서술의 空疎와 <명행정의록>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한글대하소설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고전소설의 위상 提高 방식의 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에서 ‘소설’은 19세기를 즈음하여 전대 雜錄, 瑣言 등을 아우르던 포괄적 개념에서 점차 허구적 창작물로 개념의 폭을 좁혀나간다.¹⁾ 그런데 이러한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과는 별개로 소설을 대하는 입장이나 그 가치를 논한 여러 관련 기록들은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소설 배격론이 주장하는 바, 소설은 거짓이라는 부정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불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²⁾ 물론 소설의 허구성을 장

1) 조동일, 「중국, 한국, 일본 ‘소설’의 개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319~326면.
2) 내가 어렸을 때 십여 종의 소설을 보았는데, 모두 남녀 간의 풍정과 여항의 속담을 엮은 것으로서 눈이 솔깃해진 적도 있었지만, 진정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안 뒤에는 증오하는 마음이 점차 더하여 재미가 아주 없어져 이에 그 글과 나의 눈이 서로 접하지 않게 되었다. (余幼時看十餘種 皆男女風情 閨巷副談 有時悅目 實知其真無是事 然後 憎惡之心漸加 頓無滋味 於是 書與睽不相爲謀矣.) 이덕무, 「영취잡고」 I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청장관전서』 II, 1978, 22~23면).

르적 특질로 인식하고 나아가 작품의 개연성을 높이는 방식을 논하는, 보다 진전된 소설관을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소설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소설이 ‘거짓’이라는 부정적 시선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⁴⁾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 문학 체험의 일환으로서 소설을 대하는 독자의 입장이라면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혼신을 기울여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적 상황이다.⁵⁾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소설이 거짓이라는 부정적 관점에 맞서야 함은 그것이 소설을 쓰는 행위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소설 작품이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는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할 것인바, 본고는 <명행정의록>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이 거짓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맞서는

稗官小説은 漢唐 이래 대대로 있었다. 搜神記 같은 책들도 황괴한 말이 많지만 글이 자못 순아하고 기타 여러 종류의 책에는 사이사이에 實事가 있어서 史家가 빠뜨린 것을 보완하고 사장의 수집자에게 갖추어 주는 바가 있다. (稗官小説 自漢唐以來代有之 如搜神記等書 語多荒怪 而文頗雅馴 其他諸種 間亦有實事可以補史家之闕遺 備詞場之採擷者) 『雲陽漫錄』 27a면(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29면 재인용). 이의 현의 발언은 ‘實事가 포함’되어 있어 그 가치를 일부나마 인정한다는 것으로 전면적 부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설을 ‘사실’이라는 준거로 대한다는 점에서 앞의 이덕무의 입장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 3) 소설이란 명식이 있서 처음은 스괴에 썩진 말과 초야의 전호는 일[교주본에는 ‘길’로 되어 있으나 ‘일’의 오기]을 거두어 모화너니...문쓰를 허비호야 헛말을 늘여니고 거긔 닐을 실다히 호야 보는 사롭으로 호야곰 천연이 띠드며 진정으로 맞드려 보기를 요구호니...경서와 스괴를 인증호고 괴문벼서를 상고호야 신선의 허무호야 바를 말호되 곳곳이 빙개 잇고 외국에 괴괴호야 바를 말호되 낫낫치 니역리 이셔... 홍희복, <제일기언서>, 박재연·정규복 교주,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21~23면.
- 4) <삼한습유>의 작가 김소행은 창작 후기라 할 “지작기”에서 자신의 작품을 ‘萬古奇觀 一部良史’로 표현한다. 또 <삼한습유>를 읽고 평을 남긴 홍현주도 “제항당전후”에서 이 작품을 ‘三韓遺史’라고 부른다. 이런 양상은 소설의 허구적 의의 대신 역사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자신의 창작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김소행이나 그 작가적 자질을 고평했던 홍현주가 공히 역사적 친연성을 강조한 이면에는 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5) 소설의 창작과 관련한 기록들은 소설 작가들이 결코 사소한 동기로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완월회맹연>의 작가로 논의되는 안겸계의 어머니 전주이씨는 이 작품을 궁중에 들여보내 명성과 명예를 넓히고자 했고(又翫月 安兼濟母所著 欲流入宮禁 廣聲譽也, 『松南雜識』, 동서문화원 영인본, 1987, 2419면), <쌍선기>의 작가 한은규는 사대부로서의 이념과 포부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자 이를 <쌍선기> 창작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소설이 사대부 이념의 현실적 실현에 있어 그 대치물로 인식되는 것이다(김종철, 「<옥수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07~110면 참고).

작가의 이러한 노력은 작가 개인으로서는 자기 창작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당대 소설의 위상 提高를 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조선 후기 소설의 사실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된다. 소설의 허구성을 인식한 흥희복과 같은 이들은 소설 작품이 ‘事實’을 담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일을 실다히 하’는 개연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개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인증하고 기문벽서(奇文僻書)를 상고’하여 소설 내용의 근거나 전거를 밝힐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소설의 허구성을 장르적 본질로 인식하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집착한다. 많은 고전소설 작품에서 역사와의 친연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양태⁶⁾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당대 ‘사실’로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역사적 제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역사가 가진 ‘사실’로서의 권위를 나누기를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이런 의도의 배경에 사

- 6) ① 주인공의 가계설정 방식;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허구적 인물인데, 이들의 조상은 대체로 역사적 실존인물로 설정된다. ② 사서의 서술체제 활용; <육환기봉>(규장각소장본)의 『후한서』 서술 체제 활용(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413면 참고). ③ 필법; 김춘택이 <사씨남정기> 漢譯에서 고려한 ‘史家の 筆體’ ④ 역사적 시간의 명시; <명행정의록>을 비롯한 많은 고전소설 작품이 서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호를 사용한 역사적 시간을 명시하는데, 이는 마치 작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지영도 <창선감의록>(한문본)이 역사적 시간 표현에 의해 역사 서술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7~119면). <완월회맹연>을 통해 지적된 ‘역사기록자적 서술 태도’도 이와 더불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3~50면). ⑤ 작품 내적 진술; 앞의 네 가지가 소설 작품이 담고 있는 여러 주변적 요소들에 역사적 필치를 가한 것인 반면, 작품 내적 진술은 소설 작품이 그리고 있는 중심적인 서사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작품 속에서만 의미 있는 서술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소설의 사실 여부에 집착하는 시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작품 내적 진술’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한국고전소설의 이론』Ⅱ, 새문사, 2003 재수록, 68~73면 참조).
- 7)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된 장르나 텍스트의 저자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장르 또는 텍스트에 보다 높게 평가된 장르나 정전(canon)의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일본의 경우 와카가 중국의 시와 시론을 이용하여 권위를 높이고, <겐지이야기>와 <이세 이야기>는 그 ‘이야기’보다 정전에 어울리는 장르로 간주된 와카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나 경전과 함께 최상위의 장르로 간주되었던 역사로 재배치되었기 때문에 문학 정전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24~25면 참고).

실 여부로 소설을 평가하는 당대의 공고한 부정적 시선이 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소설 작품이 형상화한 핵심적인 서사를 사실로 증명하지는 못한다.⁸⁾ 개연성을 주목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실 여부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시선에 맞서기 위해서는 작품의 줄거리를 이루는 핵심적인 서사의 사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명행정의록>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서술 방식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⁹⁾

2. 전편 서사와 역사 서사의 위상 조율

한문학에서뿐만 아니라 한글소설에서도 여러 선행 텍스트를 가져와 작품 중에 이용하는 典故는 낫설지 않다.¹⁰⁾ <명행>은 특히나 많은 전고를

8) 패사 연의 같은 것은 절반이 헛된 것에 속하는데, 양소유는 양진의 후예로 연결하고 팔선녀도 모두 계파가 있도록 하며 책의 앞에 화상을 그려 넣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헛된 것을 도리어 사실된 것으로 만드니 진실로 풍속을 그르치는 데에 관계 된다. (若稱官鍊義半屬烏有 以至楊小游系出楊震 八仙女皆有系派 寫影於篇首 以無爲有 反虛成實 有關傷敗風俗.) 김진수, <碧蘆集> 권1, 『이조후기여학문학총서』 권5, 여강출판사, 1986, 345면 (시경회, 「<옥선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5~46면 재인용). 이를 통해 볼 때 김진수 역시 주인공의 조상을 역사적 실존인물로 설정하는 고전소설의 가계 설정 방식이 사실성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19세기까지 사실 여부에 입각한 소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사례를 재확인하게 된다.

9)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을 전편으로 한 연작소설이다. <명행정의록>은 장서각 소장 70권 70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4권 94책, 2종의 이본이 알려져 있다. 두 이본 간에는 字句의 差錯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古書通信』 15호(1999.9)에 소개된 <명행정의록>(권16)도 첫 면의 사진을 통해 볼 때 역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보은기우록>은 4종의 이본이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명행정의록>과 <보은기우록>을 底本으로 한다. 이하 <명행>, <보은>으로 쓴다.

10) 최기숙은 <구운몽>과 <창선감의록> 등을 대상으로 서사 세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史實의 차용과 담론 차용의 경우로 나누어 전고를 분석한 바 있다(최기숙, 「17세기 장편 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42~161면 참고). 정길수는 <구운몽>이 전대 전기소설의 전통을 차용하는 한편, 이전의 전기소설이 보여준 미감과는 상반되는 <구운몽>만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정길수, 「傳奇小說의 전통과 『九雲夢』」, 『한국한문학회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사용하고 있는데¹¹⁾, 여기서는 <명행>에 사용된 전고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된다. <자료2-1>은 역사 서사를, <자료2-2>는 역사 서사와 전편 서사를 동시에, <자료2-3>은 전편 서사만을 전고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자료 2-1> 역사 서사를 전고로 사용한 경우

- 1) 비즈[장조영;필자]로써 기장군의 고스를 범밧아 쇼저를 디신혀여 귀부의 나
아와 붉은 경적을 줍고 격고등문훈 후 조초 상표코져하시니 (권10)
- 2) 황제가 전조 학사 송렴이 고향제를 모시고 호접과 뉴형 제한 것을 보고 칭
찬하며 화답시를 쓰기를 명하다 (권33)
- 3) 말숨이 뇨료혀여 인절혀디 구차치 아니혀고 안식이 적적혀디 강기혀를 썩
여시니 옥중의 지아뵈를 구혀던 원강이오 정확의 숨기물 디혀던 퀴지라 ...
빅희의 당의 나리지 아니혀여 영분녕엄혀는 네와 명녀의 더러운 말을 용납
지 아니혀여 절이결신혀는 절을 한 몸의 겸혀여 움죽이티 반드시 예합혀고
형혀티 반드시 절의 마즈 지아뵈를 구혀여 그룬 거슬 바르게 혠키고 니 몸을
직혀여 그 도를 선혀게 혠키니 (권52)

이들은 모두 <명행>이 역사 서사를 전고로 사용한 경우이다. 1)은 작중 사건의 진행 방식을 ‘기장군(驍將軍)의 고사’로 표현하여 치환하는 경우이다. 주인을 대신하여 시비가 납치된 후 증거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일일이 서술하지 않고 ‘기장군의 고사’를 말함으로써 사건의 진행 과정 전체를 압축한 것이다. 2)는 송렴이 지은 호접시와 유행시를 거론하면서, 작중 인물이 같은 시제로 송렴의 시에 화답시를 짓는

11) 전고나 전거를 이용한 글쓰기 방식은 일찍이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한스 프랑켈에 의하면, 서기220년부터 960년간 여러 왕조들의 정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된 ‘객관성’이란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이 시기 중국의 역사가들에게 역사 서술의 객관성이란 가능한 한 가장 非個人的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역사를 ‘새롭게’ 혹은 ‘독자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발굴한 원전 자료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스 프랑켈, 『중국의 역사 서술에서의 객관성과 편파성』,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239~253면;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68~69면 재인용).

대목이다. 실제 송림이 고향제 앞에서 응제시를 지었을 상황을 자연스럽게 작중 상황에 결부시킴으로써 역사적 사건의 실제감을 작중에 들여 놓는다. 3)은 전고를 통해 인물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작중 인물 양현강의 강개함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자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서사 속 인물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양상은 고전소설의 인물형상화 방식으로서 아주 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비유로 표현되는 경우만 아니라, <명행>에 서는 역사 서사 속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작중 인물이 겪는 사건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양현강은 집에 불이 나도 혼자 몸으로 당을 내려갈 수 없다 하여 죽었다는 백희의 고사처럼 실제로 처소에 불이 나지만 밖에 나오기를 거부하여 실신지경에 이르는가 하면, 왕웅의 아내가 역부에게 잡힌 팔을 베어낸 것과 같이 누언을 들은 귀를 베어내기도 한다.

인물 형상은 물론이고 사건의 모티프나 그 전개 양상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역사 서사를 전고로 사용한다. 역사 서사를 작중 서사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나아가 역사 서사적 상황을 작중 사건으로 형상화하는 이러한 모습은 역사 서사의 사실성을 작중에 들여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명행>의 서사를 최대한 “낮설지 않게¹²⁾” 보이도록 한다.

다음은 <명행>이 역사 서사와 전편 서사를 함께 전고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대하연작소설이 그렇듯, <명행>은 <보은>의 사건과 인물 설정을 이어받아 그 후속 세대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명행>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보은>의 작중 설정은 그 전제가 된다. 역사 서사만큼이나 전편 서사가 작품 안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자료 2-2> 역사 서사와 전편 서사를 동렬에 두고 전고로 이용한 경우

12) <보은>과 <명행>에서 인물의 주요 행위는 대부분 전고로 증명된다. 마치 故事를 엮어 작중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서술 결과 독자는 작중 서사가 마치 언젠가 있었던 사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나, 적어도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주11)에서 본 바, 일찍이 중국의 역사 서술에서 자료 제시를 통한 ‘비개성적 서술’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희복이 ‘경서와 사기는 물론 기문벽서의 상고’를 말한 것보다 상통하는 현상인데, 최근에는 이를 18~19세기 백과전서적 학풍의 유행과 결부된 소설 경향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서경희, 앞의 논문).

- 1) 먼리 비컨디 한무휘 처음으로 모려를 썬나 쇼렬을 마즈며 갓7이 의논흐면
진국공[위연청;필자]이 석년의 황갑을 마쳐 단폐의 비무홀 적과 원연흐니
그 스람의 아달이 아니면 뉘 이갓치 으롭다오리오 (권3)
- 2) 뉴후 성의빅이 다 뉘흔 스싱을 어더 큰 스업을 일우고 이조로 일너도 정즈
후는 만승국모로디 도첩을 바드시고 성널대스는 천승왕후로 스문의 도라갓
시며 더욱 당금 슈형진인[설소아;필자]은 공후의 귀너로디 폐륜 득도흐여
빅일비승흐여 종적이 업다 (권7)
- 3) 연석산인 정엽일의 사축연귀한 것과 국초 흥무도어사 양영의 서호십경으로
지은 시와 진국[위연청;필자]이 이곳에 와서 장지휘 기다리며 쓴 전당십승
제한 시를 보니 ... 사공지 대소왈 이 세 사람은 아도 유명한 고스와 톱신과
현상이니 형[위천보;필자]이 진실로 문견이 좁도다 (권14)
- 4) 텃존이 이런 고로 미리 빈도를 계탁하샤 부인[이월혜;필자]을 뵈게 하시미
니 맛당히 목난의 복식을 변흐여 아비 길을 절시의 더신희물 효츄하고 갓가
이 녕존과백승설;필자]의 농봉산 가운데 약을 어더 진국공[위연청;필자] 구
흐던 일을 계승홀쏘나 (권42)

1)은 위천보가 장원급제하여 호명된 후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
이고, 2)는 소예주의 惡事를 돕는 도사 새홍선이 道家와 인연한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3)은 위천보가 어사로 지방을 순무하던 중 사백기의
아들 사공자를 만난 대목이다. 정엽일과 양영의 시가 호심사 벽상에 찍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편 <보은>에서 위연청이 이곳에 머물면서 시를
썼음을 나란히 제시한 것이다. 이어지는 사공자의 발언은 위천보가 위연청
의 아들임을 모른 채 위천보 앞에서 이들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4)는 위천
보의 원위 부인 이월혜가 차위 소예주의 모함으로 피신해 있던 중 戰場에
서 요도의 화살을 맞고 절명의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러 가는 대목이다.

제갈공명과 위연청/ 유기·정자후·성열대사와 수행진인/ 정엽일·양영
과 위연청/ 목란과 백승설을 나란히 서술해 보인다. 이는 <명행>이 역사
서사와 전편 서사를 동렬에 두고 그 기능이나 위상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역사 서사를 전고로 이용함으로써 역사 서사의

사실성을 작중에 끌어왔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동시에 전편 서사가 작품의 선행 텍스트로서 점차 역사 서사와 다를 바 없는 위상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명행>은 전편 서사만으로 전고를 삼기도 한다.

<자료 2-3> 전편 서사를 전고로 사용한 경우

- 1) (청운 왈;필자)이 썩 경식이 석년의 국공노야[위연청;필자]를 피서 강도감 집의 갓실 적 곳트나 그는 다만 훈 집이러니 이는 가가호호이 여츠 흥흥니 (권16)
- 2) 디현이 지삼 사례호고 도라가 츠후로 훈낫 어진 관원이 되어 어스[위천보; 필자]로 교도를 완전흥니 진공[위연청;필자]의 하람백[왕경인;필자]과 갓더 라 (권18)

1)은 위천보가 어사로 지방을 순무하던 중 섬서 지방에 이르러 요귀를 퇴치하는 대목이다. 전편 <보은>에서 위연청이 강도감 집에 갔다가 온 집 안에 요귀가 침범하여 사람들이 실신해 있는 것을 해결한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작중 사건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일일이 서술하지 않고 전편의 서사로 미루어 놓는다. 전고를 모르면 정확한 문맥을 이해할 수 없듯이 전편 서사를 모르고서는 이 대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2)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위천보가 창기에게 미혹하여 정사를 잘못된 지방관을 선도하고 같은 士類로서 交道를 온전히 한 것을 전편 <보은>에서 위연청이 자신을 모함했던 하람백 왕경인을 개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에 비겨 놓았다. 같은 士類로서 잘못을 고치도록 돕고 올바른 인성을 회복하였을 때 지기로서 허심하는 사례를 역사 서사가 아닌 전편 서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방식의 서술은 이미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역사 서사를 가져와 작중 서사의 위상을 높이는 방식에서 나아가 같은 소설의 서사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소설이 다른 소설의 서사를 전고로 이용한다는 점만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될 것은 그것이 전편 서사라는 점이다. <명행>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전편 서사는 역사 서사만큼이나 부정할 수 없는 작중 서사의 전제

이다. 그런 전편 서사를 역사 서사처럼, 역사 서사와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전편 서사에 역사 서사만큼의 권위와 위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명행>은 작중 서사를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안해 내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낯익은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서술 지향성을 보인다. 그러한 지향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전고를 이용하는데, 이때 <명행>은 역사 서사만이 아니라 전편 서사 또한 적극 활용한다. 그 결과 전편 서사는 역사 서사와 대등한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명행>은 이처럼 전편 서사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전편 <보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서사 정보를 제시한다. 이는 전편 서사의 권위를 한껏 높이던 서술 태도와 다소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양상이 전편 '서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 '서술'의空隙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명행>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전편 서사의 배후를 살펴보자.

3. 전편 서술의空隙와 <명행정의록>

<명행>이 역사 서사뿐만 아니라 전편 <보은>의 서사까지 전고로 이용하면서 전편 서사를 역사 서사와 대등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전편 서사에 역사 서사만큼의 권위를 부여한 <명행>이 전편 서사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지는 않다. 전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사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작소설의 후편인 <명행>이 전편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사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물론 전편에서 주인공 위연청과 관련하여 설정되었던 사건을 확대하여 보여주거나, 전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고 있음을 말한다.¹³⁾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위연청 자녀 세대를 주역으로 후편에서 새롭게 형상화되는 중심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1> 전편 사건의 확대; 환관 왕태감 징치 사건

전편 <보은>에서 형상화된 평산당 상량문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 전편 (권5)에서 무령백 사공자가 평산당을 중수한 후 천금을 내걸고 상량문을 구한다. 위연청은 부친의 심부름 차 항주로 갔다가 인근 문사들이 모두 평산당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평산당으로 구경 간다. 그리고는 뜻하지 않게 상량문을 쓰게 되고, 상금은 사양한 채 돌아온다. 그러나 부친의 첩 녹운은 위연청이 상금으로 받은 돈을 기생 속량에 모두 써버렸다고 무고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장책을 당한다.

<명행>에서는 이 평산당 상량문 사건에 다음 서사를 결부한다. 평산당 상량문을 본 환관 왕태감이 그 文才를 높이 사 위연청에게 아버지의 碑銘을 청한다. 위연청은 환관임을 꺼려 사양하지만, 부친 위지덕은 사례금을 받고 연청을 모질게 구타하면서 비문 쓰기를 강요한다. 이에 위연청은 하는 수 없이 서화를 이루어 팔아 부친이 받은 사례금을 돌려준다.

이러한 서사 정보는 <명행> 권1에서 위지덕의 입을 통해 제시된다. 예전 위지덕의 첩 녹운과 모의하여 가산을 빼돌려 도주했던 卜者 형정이 위천보에게 붙잡히자 위천보는 이를 치죄하여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위연청은 부친 위지덕의 전날 과오가 드러날까 이를 강하게 만류하고, 결국 위천보는 형정을 치죄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연청이 위천보를 질책하는 사단이 벌어지면서 위지덕이 모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데, 이 와중에 왕태감이 그 아버 비명을 구했던 일이 드러난다.

이후 권16에서 위연청이 그려 팔았다던 서화가 위천보 수중에 들어오면서 왕태감의 일은 재론된다. 위천보가 어사로 지방을 순무하는 가운데, 사백기의 아들 사공자가 위천보에게 선물로 서화를 보낸다. 뜻밖에도 이것이 자기 부친의 필적임을 알게 된 위천보는 예전 부친을 따라 다녔던 종 청운으로부터 부친이 그 서화를 그려 팔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듣게 되는 한편, 당시 그 서화를 샀던 임처사의 아들이 왕태감과 사공자에게 그 서화를 헐값에 탈취 당했음을 고발하는 所志를 접하게 된다. 위천보는 예전부터 왕태감에게 절치부심하였으나 “말이 다 닳는 곳이 잇는 고로 능히 설분할 심

의를 못하더니” 서화를 탈취했다는 사건을 접하자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왕태감을 불러 문죄한다.

어시 혼 번 보미 심니의 절치하여 님싱의 쇼지틀 나리위 주고 ㄹ르쳐 정성
 즐왈 노릇업는 필뵈 저머서 역즈의 여중으로 감히 도정의 죄를 짓고 성주의
 호성지덕이 일명을 용사하사 전니의 니치시니 황공축복하여 인류의 춤슈치
 못하염죽 하거늘 오히려 춤남흔 생각으로 비법의 뜻을 두어 갈문과 비명은 명
 공거경의 혼 빅오 너 노환의 감히 성의혼 일이 아니여늘 언연이 더러운 일흠
 과 천흔 무덤을 브디 표코져 혼진디 그곳튼 무리와 상당흔 뉴의 구하미 올커
 늘 감히 스족 문인과 고스현유를 강박하여 더러운 지물을 빙자하며 암모 곡경
 을 도모하여 그 원치 아닛는 바를 붓치다가 죽은 후 빅디의 모함하여 공연흔
 은즈를 구식하니 그 외람흔 죄와 함인흔는 악이 가히 관형을 도망치 못홀지라
 니 임의 너의 간스흔 아전과 동심하여 디현을 속이고 송스를 이괴를 불히 아
 나니 실진무은하여 악형을 입지 말나 (권16)

위 인용문은 위천보가 왕태감을 불러 치죄하는 대목이다. 임생을 속이고 권세로 협박하여 서화를 훔값에 빼앗은 사건만이 아니라, 분수에 맞지 않게 일개 환관이 사족 문인에게 비명을 청한 행위를 문죄 삼고 있다.

이 사건은 위연청 자녀들의 혼사를 주로 하는 <명행>의 전체 서사와 그리 긴밀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지사로 회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천보가 나서서 징치하는 <명행>의 작중 서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명행>이 예법이나 그에 따른 절차를 중시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문체 해결을 중시하는 측면과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행>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예법이나 명분, 도리를 중시함은 여러 차례 드러난다. 원위 이월혜를 모해하는 차위 소예주의 악행을 이월혜의 시비들이 주동이 되어 발각하고도 이를 공문화시킬 때는 “상서의 주인인즉 동시주모라 오자서의 초평왕을 보수함이 군신대의 아님을 이는 고로 석부마를 격동하여 천정에 주달(권36)” 한다. 즉 시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지아비의 또 다른 부인 역시 주인과 동렬이므로 그 죄상을 발각한

다는 것은 주인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그 죄상을 발각하지 않고, 그럴 만한 신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상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 예법을 무시하고 非禮之行을 저지르며 다니던 사몽성이 위혜주(위연청의 딸)의 화상을 본 후 상사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감히 구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사몽성은 몸져누운 자신을 슬퍼하는 부모에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시 스족이오 년과 상적하니 엇지 늑네로 구하여 성혼치 못히리잇가 만은 쇼지 능히 형신호를 네로 못하여 사름의게 견과히미 만흔지라 진국공[위연청-필자 첨가]이 즈쇼로 호례독형하여 비례를 원슈갓치 하니 그 녀아 스랑호를 제즈의 더어 정히 도학군즈로써 구혼한다 하니 엇지 쇼즈탈 도라보미 이시리 잇가 (권59)

작중에서 사몽성은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사랑하기만 할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非禮之行을 일삼는 것이라고 거듭 서술된다. 그만큼 사몽성의 의사를 일일이 따라 주던 부모이지만, 평소 자신의 非禮之行 탓으로 감히 구혼할 수 없다는 사몽성의 말에 눈물만 흘릴 뿐이다.

이처럼 악인의 잘못을 발각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 사건 해결을 위한 행동 방식이 달라야 하고, 같은 사류간이라 하더라도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주요한 혼사장애가 된다는 점 등은 <명행>이 선악의 대결을 문체 삼고 있으나 그 결과보다 해결의 과정을 더욱 중시함과, 더불어 그 과정이 예법과 명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태감 징치 사건은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행>이 예법과 절차를 중시함은 전편 <보은>의 서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위연청의 아들 위천보가 이월혜와 혼례를 치르고 見舅姑의 예를 올리는 순간에 위연청의 외삼촌 양소사는 위연청 부부에게 혼인 당시 제대로 폐백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지금이라도 옷을 갖추

어 입고 위지덕에게 예를 올리라 권한다. 이는 <보은>에서 위연청이 不告而娶한 후 부인 백승설과 정식으로 그 부친에게 예를 올리지 못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은>에서 위지덕의 첩 녹운이 부자지간을 이간하면서 가산을 빼돌리는 동안 위연청은 토지묘에서 부친에게 맞아 실신한다. 이때 도사 구현웅의 도움으로 백승설, 뉴한 등이 위연청을 구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었다. 위연청은 때를 기다리던 중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고, 그동안 백승설이 녹운의 작폐로 곤란에 처한 위지덕을 구호한다. 이후 위연청이 돌아와 부자갈등이 해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연청 부부의 정식 혼례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명행>은 예법이나 명분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식에 따라 <보은>의 작중 상황을 문제 삼아 교정하기도 하고, 나아가 전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을 결구하여 보이기도 한 것이다.

<사건2> 전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 토지묘 사건

토지묘 사건은 전편 <보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위지덕의 첩 녹운은 위연청이 평산당 상량문 사례금으로 받은 돈과 그밖에 여러 사건으로 생긴 금전을 부친 몰래 허비하였다고 모함한다. 이에 격분한 위지덕이 토지묘에서 위연청을 철편으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위지덕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귀가하고, 녹운의 사주를 받은 왕소삼 등이 위연청의 시신을 확인하고자 할 때 도사 구현웅의 가르침을 받은 뉴한 등이 나타나 위연청을 구한다.

그런데 <명행>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에서의 서술을 더하고 있어 주목된다. 위천보가 어사로 巡撫하면서 토지묘 일대를 돌아보던 중 청운이 예전 형정에게서 들은 것이라며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즉, 왕소삼 등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위연청을 해치려 하자 토지묘 신상과 판관 흑상이 구하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고, 이에 위지덕이 부자지간의 일에 쫓겨간 간섭한다고 호통 치자 감히 구하지 못했다(권13)는 것이다.

전편에서 토지묘 사건은 부자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명행>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현실계의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이후 다시 반복된다. 다음은 전편에서 위연청을 구해준 구현웅이 위천보를 만나 토지묘 사건에 관해 말하는 대목이다.

말을 다하고저 혼죽 군[위천보; 필자]이 허탄함을 취신치 아니리니 다만 녁
 준[위연청; 필자]은 상계문창이라 텃상텃하의 일뭇 문장을 머리하여 그릇 문필
 을 녀성되 빌니고 문뭇을 곤이의 썩러친 저[죄 오기; 필자]로 적하하니 다만
 인간 십팔 년 춘추를 지니고 형벌노 몸을 맞게 하였시니 텃되 혼 번 정하미
 진실노 면키 어렵거늘... 옥테와 여리 크게 감동하사 흥흥 거슬 다 변하여 길
 게 하고 박흔 복을 번드쳐 두터이 현실시 다만 그 적하지초의 임의 정흔 비
 잇시미 능히 아조 업시치 못하여 더명으로써 겹슈를 민다라 혼 번 토지묘의
 대화를 지니고 괴스회성하게 하시니 이 면치 못흔 연피니라 (권17)

卜者 형정에게서 청운이 들은 것은 위연청이 토지묘에서 부친에게 맞아
 실신하였을 때 토지묘 주변 神像들이 위연청을 구호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 구현웅의 발언은 현실계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초월계에서 예
 정한 토지묘 사건의 전후 맥락을 밝힌 것이다. 卜者(형정)와 도사(구현웅)의
 위상 차이만큼이나 그들이 알려주는 내용 역시 깊이가 다른 데서 작가의
 서술상의 안배가 돋보이는 이들 대목은 공통적으로 토지묘 사건과 관련하
 여 일반인이 보고 들을 수 없는 현실 너머의 초월계 속 정황을 일러주는 것
 이다.¹⁴⁾ 이는 <명행>이 전편 서사를 좀 더 다각적으로, 심화시켜 인식함으
 로써 전편이 들려준 것 이상의 서사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행>은 전편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을 전편 서사에 결구시켜 형상화
 하거나, 또는 전편이 현실주의적 관점에 국한하여 들려준 것 그 너머를 독

14) 고전소설에 드러난 초월주의적 세계 인식에 관해서는 이상택선생이 일찍이 <명주보월
 명>의 구조 분석을 통해 그 존재론적 의미를 규명하였다(「<명주보월명>연구」, 『한국고전
 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또한 「고전소설의 세속화 과정 시론」에서 고전소설이 기
 반한 문화패턴을 크게 신성문화와 세속문화로 범주화하면서 신성문화의 세계관적 특징으
 로 초월주의의 특징을 논의하였다(앞의 책;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I, 새문사, 2003 계수
 록).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독자에게 전편의 ‘서술’이 온전하지 않음을 감지하게 한다. <명행>은 전편에서 서술된 것 이상의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전편 <보은>의 서술이 공소함을 증명하는 한편, 그 영성한 틈새를 <명행>이 채움으로써 전편 <보은>에 대해 補遺編으로서의 연작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전편 서사를 역사 서사와 동일하게 다룬 <명행>이 이와 같이 전편 ‘서술’의 空疎함을 드러낸 것은 나아가 역사 ‘서술’의 공소함을, 그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에는 <명행>이 역사 서술의 공소함을 지적함으로써 補史로서의 의의를 주장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4. 역사 서술의 空疎와 <명행정의록>

<명행>은 역사 서사와 전편의 서사를 대등하게 취급했다. <명행>과의 시간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사 서사와 전편 서사는 모두 <명행>의 서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동시에 전제가 된다. 전편 서사를 역사 서사와 대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전편 서사에 역사 서사만큼의 권위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결국 <명행>의 자기 위상 높이기로 연결된다.

이렇게 과거(전편 서사)를 역사화한 것은 결국 <명행>이 전개하고 있는 작중 서사의 史的 권위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작중 서사의 과거를 역사화한 <명행>이 작중 현재 서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역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지 살펴보자. 다른 대하소설들처럼 <명행>도 작중 인물들이 구체적인 공적 직위를 가지고 활동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인물들과 교유하거나 작중 사건이 역사 사건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명행>이 그 배경으로 삼은 시대의 역사 서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이

15) 연작 고전소설 가운데, <옥원전해>를 <옥원재합기연>의 보유작으로 거론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해제』,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정 연구(1-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6~7면).

런 순간에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음 자료는 <명행>이 동시대 역사, 역사 서술과 만나는 순간들이다.

<자료4-1>

- 1) 양계성이 엄승의 방조국화를 통회하여 충분을 격발하여 만언을 진쇼하니 귀신이 서안을 들너 울고 이 말은 스기에 잇느니라 (권21)
- 2) 원니 경스의 요승과 사되 잠군하여 빅년스 가운데서 중심을 흑케 하고 칭왕 빅년괴라 하여 7만이 무리를 띠즈며 기중의 니옹농이란 요적이 잇서 두손의 일월썸을 숙여 사술이 무량하니 불영의 무리 추더하여 남군을 숨고 하람 산동 등쳐 요괴로운 무리 서로 구완하여 복노를 년하여 흑 경스의 증복하고 흑 원방의 출몰하여 명년 스월노빠 군스를 니르허기를 괴약하였더라 이 말이 명스의 분명하니라 (권25)
- 3) [황제가;필자] 변보를 보시니 남경 쇼항 등처의 항복헌 도적 양상국이 다시 반하니 진지 오기;필자현 왕회향병을 거느려 연하여 피하니 적이 반간을 노하 해 임의 죽었다 하니 화의 처 허시 듯고 즈경이스하니 해 듯고 슬프고 분하여 용발하여 쏘오기를 더욱 급히 하니 적이 계궁녁진하여 서변으로 다라나 항복하니 변왕 첩목이 그 썸오물 드리 장춧 반하여 광서부현을 노략하여 중원을 엿보고져 하니 심상헌 초적의 비길 비 아니오 절강 영라부 정희현의 붉은 바람이 크게 니러나고 거문 안기 가운데 인물이 완연하여 슬위 박회 갓하여 눈빛치 번기를 두르고 어름과 우박이 쏘와 집과 기와를 운동하고 조작이 마즈 죽고 썸 농목정이 화하여 술이 되고 한지 티심하여 야무유청하고 여역이 더괴하여 빅성이 죽는 지 슈를 이지 못한다 하여 상보스 유분농이 고급하였는지라 이 두 일이 다 명스의 잇느니라 (권38)
- 4) 니러트 스오일이 지나면 상이 증휘 더욱 위중호스 진국공과 티학스 고공과 장거정을 건청국의 입시호스 탁고호실시 상은 니시의게 붓들녀 의지하여 좌호시고 어좌 뒤회 병풍을 격하여 황비 좌호며 티지 탐하의 뵈셔 계시더라 이 스기의 잇느니라 (권68)

위의 인용문 가운데 1), 4)는 엄승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화를 당한 양계

성과 관련한 서술이다.¹⁶⁾ 2)는 백련교도들의 발호를 진압한 후 그 경과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이고, 3)은 양상국의 난¹⁷⁾이다. 이들은 모두 명나라 세종, 목종조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로 <명행>의 서사 시간과 동시대에 놓여 있으며 <명행>의 작중 인물들과 결부된 서사들이다.

그런데 이를 보면 네 가지 인용문 모두 지금 <명행>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小子夾註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전소설에서 주를 서술 중에 이용한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다. 그러나 아주 드물지는 않아서 특히 대하소설에서는 주가 사용된 사례들을 간혹 볼 수 있다.¹⁸⁾ 그런데 <보은>과 <명행>은 둘 다 서술 중에 주석을 이용하고 있고, <명행>의 경우는 특히 그 사례가 많은 편이다. <명행>에 이용된 주석은 단순한 글자 해석에서부터 단어나 고사 풀이, 보충 설명, 인물 해설 등 다양한 쓰임을 보인다.

주에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맥락에 온전히 들어맞힐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주로 표현된다는 것은 본문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석을 이용한 서술방식이 소설에 이용되었을 때, 주석으로 표현된 것은 본문 즉 소설의 “작품내적 진술”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 말이 사기에 있다’거나 ‘이 일이 명사에 있다’는 주석에서 “명사”나 “사기”는 작중 세계 안에서 소통되는 역사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소통되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들은 곧 작품 바깥 현실 세계에서 소통되는 실제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행>은 이렇게 주석의 방식을 통해 과감하게 작품 밖의 역사 서술을 거론하면서 『明史』를 그 서사의 준거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석은 작품 속 세계와 바깥 세계의 직면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 16) <명행>에서 위연청의 셋째 며느리가 양계성의 딸 양현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17) 양상국의 난 자체가 <명행>의 서사와 인과적 관련을 맺지는 않는다. 양상국의 난을 계기로 위천보와 위천유가 원수와 여사로 지방을 순무하게 되고, 이 동안에 형상화되는 두 형제의 활동은 공무 수행 자체보다는 개인적인 사건들에 보다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을 작중 서사 전개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18) <보은>과 <명행> 밖에 <완월회맹연>에도 이러한 주석 형태의 서술이 있다(정병설, 앞의 논문, 30~31면 참고).

그러면서 작품 안의 세계와 바깥 현실 세계 사이의 대화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석으로 표현된 것은 작중 서술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건네는 발언이며, 이를 통해 서술자는 작중 세계를 말하는, 작품 속에만 존재하는 서술자가 아니라 작중 세계와 바깥을 소통하는 매개자인 것이다.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독자에게 직접 발화를 서슴지 않고 해왔다. 그러므로 이런 직접적인 발화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⁹⁾

이처럼 <명행>은 작중 서사 가운데 실제 역사와 부합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보다 직접적으로 正史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의 중심 서사들은 결코 역사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²⁰⁾ 다음은 그런 <명행>의 핵심적인 서사와 역사 기록과의 관계를 서술한 대목이다.

<자료4-2>

- 1) 다만 앓기는 바는 녁존이 비록 성시의 명주를 맛나 어썩 합스고 지조를 피 공개우주호고 화형년각호여시나 물너가미 너모 닐너 큰 지조를 밋쳐 퍼지 못호고 쇼인이 후리의 농간호여 괴이호 문혹지덕이 만히 스키에서 실토여 후세의 유전호미 도로혀 성의빅만 궤지 못홀가 앓기노라 (권17)
- 2) 목중이 치국호시고 진공이 동조호 썩는 당거덩과 풍보 적환이 감히 용스치 못호고 고기를 숙여 다만 국스의 진심호여 슈단을 발피지 못호나 김히 그

19)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건네는 말을 작중 세계를 서술하는 것과 구분지어 보이는 주석은 낭독을 통해서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상은 소설 작품이 낭독의 방식보다는 목독의 방식으로 소통되는 문화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석을 이용한 글쓰기나 목독 방식에 의한 텍스트 향유 가능성은 한글문화보다는 한문문화와 더 가깝다. 따라서 비록 소설 작품이 한글로 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주석의 사용은 작품의 생산과 향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문문화권과 관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명행>에 드러난 주석을 이용한 서술의 특징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다른 논의의 자리를 통해 상론코자 한다.

20) 소위 낙선재본소설의 마지막 독자라 할 수 있는 윤백영 노파는 <중앙일보>와의 대답에서 배경을 중국으로 하여 “거짓말이라도 그럴 썩 하게 꾸”민 작품으로 <보은>과 <명행> 연작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明나라 공신 사적을 의우듯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긴 正史에도 野史에도 없”다고 진술한다(<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 5면), 이는 그만큼 <명행>이 역사와 近似함을 토대로 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지덕을 써리며 도학을 아쳐하여 타일 진공이 넘천의 도라가고 거덩의 당권
하는 씨를 타 스관으로 동심하여 진공의 보턴정일지공과 편만희니지명을
디명스기의 썩히문 니르지 말고 서남 이후의 괴지디공과 정충직절을 한가
지로 기록히미 업스니...막비턴기라 한갓 당거덩을 죄치 못홀 거시오 츠전
이 더욱 업지 못홀진저 (권66)

- 3) 녁존이 일즉이 물너나고 쇼인이 씨를 타 농권흔 즉 스신의 붓 쫓출 스스로
이 하여 감히 지공무스흔 스키를 변환하여 녁존의 고명디공을 청스의 유훈
[루 오기;필자]하여 부즈형제 후세의 뉴전치 못히리니 (권68)

위 세 인용문은 모두 <명행>이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음을 밝힌 서술들
이다. 1), 3)은 작중 주인공 가문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도사 구현용이 위
연청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2)는 서술자에 의한 진술이다. 소인과 간신
의 발호로 주인공의 행적이 역사에서 삭제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이 단
순히 간신배나 소인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늘이 정한 이
치에 따른 것이라 했다.

‘지공무사한 사기’의 기록이 몇몇 간신이나 소인배들에 의해 함부로 고
쳐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²¹⁾ 그런데 <명행>의 서술자는 다만 ‘사기에서 失하’고, ‘대명사기

21) <명행>이 正史에 대해 이처럼 다소 도전적이라 할 역사 인식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조선에서 『宋史』나 『明史』를 夷狄 왕조가 편찬했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새로운 역
사 편찬을 시도한 일련의 동향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찍이 유성룡
(1542~1607)은 『宋史』를 읽는데 간혹 시비가 혼란스럽고 거취가 분명치 못하여 사실과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讀史叢測』을 저술한다. 그런가 하면 정조
는 동궁 시절에 元代 脫脫 등이 편찬한 『宋史』는 근거가 없고, 체제나 서술 방식에서 모
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대에 국가에서 여러 차례 『宋史』 개찬을 시도했으나 끝내 이루
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宋史笥』을 편찬한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이덕무(1741~
1793)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통해 2차에 걸쳐 개정본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明史에
대해서도 18세기 들어 대명리론에 입각한 『明史綱目』·『皇明通紀輯要』 등이 저술되었
다. 이처럼 元, 淸이 만든 宋史, 明史를 비판하고 조선인의 시각에서 이를 다시 편찬한 것
은 중화문화의 정통성을 온전히 계승한 조선만이 중국의 역사서를 제대로 편찬할 수 있
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 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김호중, 「16세
기말 유성룡의 역사인식」, 『역사교육논집』 29집, 역사교육학회, 2002; 김문식, 「18세기 후
반 서울 學人의 淸學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규장각』 1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김문
식, 「『宋史笥』에 나타난 이덕무의 역사인식」, 『한국학논집』 3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

에 빠지'고, '청사에 遺漏하'였음을 말할 뿐이다. 역사 서술 가운데 주인공의 행적이 빠졌을 뿐, 남은 역사 기록이 거짓이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것처럼 주인공의 행적이 역사에서 빠지게 된 것도 모두 천기 아님이 없다고 했다. 삭제된 것이 天意이듯, 남은 것 또한 천의이다. 그러므로 이제 기록으로 남은 것으로서 역사의 권위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역사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서술의 空疎性을 지적하고, 그러한 이유로 <명행>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²²⁾

補史로서 <명행>의 의의를 주장하는 이 대목은 앞서 살펴본 바, 작품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양상을 통해 그 설득력을 얻게 된다. <명행>은 역사가 기록한 사실 자체나 혹은 사실의 기록으로서 역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를 작중 서사의 준거로 삼으면서 강한 신뢰를 보인다. <명행>은 역사를 직접 문제삼는 대신 그것이 연작소설의 후편임을 적극 활용한다. 즉 전편의 서사를 역사 서사와 대등하게 전고로 사용하는 한편, 그 서술의 공소함을 전편 서사의 확장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행>은 전편 <보은>과 보유편으로서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전편 서술의 공소함은 독자로 하여금 전편 서사와 대등하게 다루어진 역사가 그 서술에 있어서 공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명행>은 역사 서술의 공소함을 지적하고 그것이 천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힌다. 이는 토지묘 사건에 대해 전편이 보여주지 못한 초월계에서의 맥락을 밝힌 <명행>의 서술관점과 상통한다. 전편이 보여준 현상, 그 너머를 초월주의적 인식을 통해 보여준 <명행>의 서술태도는 이 지점에서 역사가 기록한 현실 그 너머를 말하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다.

소, 1999 참조). 조선 후기 문화중심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소설가가 역사나 역사 서술의 강력한 권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인식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2) 역사 기록의 공백을 소설이 메우고 있다는 지적은 <옥환기봉>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00, 174~179면).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명행>이 형상화하는 중심 서사가 거짓이 아니라,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사실임을 주장하는 일련의 서술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소설의 허구가 가지는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 여부에 집착하는 당대 소설 부정론자들의 시선 속에서 작가가 자신의 창작 행위와 그 결과물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소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명행>은 연작소설의 후편으로서 전편 <보은>의 서사를 역사 서사만큼 권위를 가진 것으로 다룬다. 이런 서술 방식은 독자에게 전편의 서사를 역사 서사만큼 신뢰하게 한다. 그런 한편, <명행>은 전편이 서술한 사건을 확장하여 훨씬 포괄적으로 세계를 조망해 보인다. 이를 통해 독자는 점차 전편의 서술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즉 전편 서술의 空疎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전편 서술의 空疎함에 대한 인식은 그와 대등하게 다루어진 역사 서술의 空疎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사실’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는 역사에 대하여 그 서술이 공소함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기록이 결코 거짓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 기록의, 온전한 전체집합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명행>의 작가는 역사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 기록 너머의 사실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가 역사 기록으로는 조망할 수 없는 초월주의적 세계 인식을 소설이 보여줄 수 있음을 <명행>은 예시한다.

사실을 기준으로 소설을 대하는 조선 후기 많은 소설론자들 속에서 소설이 거짓이라는 부정적 편견에서 벗어나 그 위상을 제고하는 길은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행>은 ‘사실’로서 가장 권위적인 역사, 그 기록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사실’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속에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85.
- 방정요, 홍상훈 역, 『중국소설비평사략』, 을유문화사, 1994.
- 박재연·정규복 교주, 『제일기연』, 국학자료원, 2001.
- 陽圃李相澤教授 還曆紀念論叢 刊行委員會編,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이론』Ⅱ, 새문사, 2003.
- _____,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 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루샤오핑, 조미원 外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 김문식,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규장각』 17,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1~55면.
- _____, 「『宋史箋』에 나타난 이덕무의 역사인식」, 『한국학논집』 3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29~51면.
- 김종철, 「〈옥수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호중, 「16세기말 유성룡의 역사인식」, 『역사교육논집』 29집, 역사교육학회, 2002, 81~104면.
- 서경희, 「〈옥선몽〉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정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00, 157~183면.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정길수, 「傳奇小說의 전통과 『九雲夢』」,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53~379면.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옥원재합기연〉 해제」,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정 연구 (I-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1~28면.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K C I

The way to gain a status of Korean classical saga novel in Joseon Dynasty

Seo, Jeong-min

This paper examined what sort of strategic narrative was used in the hangeul saga novel, *Myeonghaengjeonguirok*(명행정의록), in order to raise the status of novels in the late Joseon period. Since its origin, the novel had been continuously denounced because it was not fact, but gradually this fictitiousness was recognized and then accepted. Yet the fact that the novel was fundamentally not based on fact acted as a stumbling block to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novel's value until the concept of the modern novel, which accepted this fictitiousness as the essence of the novel, became standard.

If we reexamin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lassical novel author this understanding of the novel's fictitiousness as falsehood, we see that, in one way or another, a breakthrough was necessary in the creative proces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of *Myeonghaengjeonguirok* expressed the emptiness of the narrative of history through an analogy between the narrative of *Boeunguirok*(보은기우록: the prequel to *Myeonghaengjeonguirok*) and the narrative of history. And on the premise of this narrative of history, the author insists that *Myeonghaengjeonguirok* contains unrecorded facts of history. Concerning history whose authority is officially recognized as a record of past facts, *Myeonghaengjeonguirok* shows that historical records are not at all the entirety of actual past events. Through this, *Myeonghaengjeonguirok* goes beyond the reality unrecorded by history to prove that the novel can demonstrate the principles of operation of a transcendental life and recognize a broader world.

Keywords : Korean classical Novel, saga novel, *Myeonghaengjeonguirok*(명행정의록), *Boeunguirok*(보은기우록)